

분과발표_교육 5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정희정 (충신대학교 강사)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관련 마음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부재현상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통해 기독교 교육에서의 마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 교육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음이론의 개념과 연구동향을 살펴본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한편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분석해봄으로써 마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은 행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본성적인 측면이 더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구성요소로서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구별하셨으므로, 인간의 감정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구성요소로서 욕구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겉사람의 변화가 아닌 속사람의 변화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의 변화로서, 이는 마음의 변화이며 욕구의 변화이다. 결론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억제가 사회적 욕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는 자기조절의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핵심주제어 : 마음, 마음이론, 마음과 행동, 감정, 욕구,

I. 서론

산업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았던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주로 외형적·양적 발전에 치중하였고, 선진 과학 기술이 유입되면서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수단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정보화 사회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는 정보혁명에 따른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극단적 개인주의의 발달, 물질만능주의, 인명경시 등 비인간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심각한 병폐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학교교육은 입시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교육의 초점이 대학 진학에 맞춰져 있으며, 이에 교육 현장은 이미 유치원시기부터 이러한 방향성에 모든 교

육과정이 짜맞춰져 있다. 즉 한국교육은 바람직한 전인적 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인간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부재의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잘못된 교육열로 인한 기본 인성교육의 공백과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단절 및 학교폭력, 인간성의 파괴 등 이러한 교육부재의 현상은 결국 현대사회의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재와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부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즉 교육부재란 의미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듯 현대사회의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학교교육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존재하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해마다 학생들은 학교에 온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교육부재의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재란 교육의 형식이 아닌 교육의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지금까지 해온 교육의 방향성이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교육의 형식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이러한 포괄적인 질문은 학자나 교육자들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기도 한다. 왜냐하면 소수가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제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이에 교육개혁이란 소위 탁상공론으로 치부되는 요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부재의 대안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학부에서는 '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을 발표하여 인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한 교육임을 나타냈다(원인숙, 2011).

인성은 영어의 'personality'를 번역한 것으로 보통 '성격'과 '인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전달되며, 사전적 의미로서 인간의 성품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사람됨의 모습 혹은 사람다운 일정한 가치에 도달한 내면의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토대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인성교육을 인간교육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며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이원희, 홍기질, 김용조, 1999). 둘째, 인성교육을 인격교육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인성은 인간의 성품으로 이해할 때 이는 성격교육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성격이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특정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격교육이란 인간의 성격형성이 바람직하게 되도록 환경과 인간관계 등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성격을 정상적이 되도록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심리교육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인성은 마음 혹은 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인성교육은 정의적인 측면으로서 부드럽고 원만한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의 동기, 태도, 흥미, 가치, 감정, 정서, 성격, 심성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성교육을

심성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도은아, 2007).

인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유아기 인성발달의 덕목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본능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올바른 현실 감각을 길러주는 것과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로 자신의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현실에 기초한 사고는 건전한 인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함양하는 것도 인성 덕목이다(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이처럼 현대사회의 교육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의미 및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인성은 결국 인간 성품의 토양이 되는 마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부에서 제시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mind, 마음)를 가진 사람이며, 심성교육의 측면에서의 인성이란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성교육이 성품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품이 형성되는 마음에 대해 본질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부재현상이란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교육의 허실이 드러난 것으로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했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은 행동이 아닌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방향성은 마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 더 나아가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음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심리학은 없다. 마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정신, 심성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는 했어도 결국 모든 학문의 시작은 인간의 내면적 요소인 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 특히 마음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내적인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추론할 수 있는 아동의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론은 사람의 신념, 욕구, 정서, 의도와 같은 정신적 상태의 총체이자 내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동이 관찰 가능한 일로부터 그 일에 대한 내면의 마음상태를 추론할 수 있고, 추론된 마음상태를 사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마음이론은 습득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루어진 유아 관련 마음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부재현상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전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기독교 교육에서의 마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 교육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마음이론

1. 마음이론의 개념

마음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및 타인의 마음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마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심리학자들도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감각, 지각 및 지, 정, 의가 움직이는 자리로서 심리적 과정을 마음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으며 또 마음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과정과 의식적 경험의 전체, 심리적 활동과 의식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개념, 주제, 자기, 혼 또는 영혼, 행동 또는 사고의 특징적 양식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즉 마음이란 지성, 감정, 의지 등 인간의 총체적 정신활동으로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인 마음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해간다(서미정, 2005).

이렇듯 추상적이고 모호한 마음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다음과 같다. Wellman(1988)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나 지식 체계가 이론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이론은 여러 사건들을 설명하고 예측해야 한다. 둘째, 이론은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이론은 사건들을 설명, 예언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이론도 이와 같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시킨다. 첫째, 마음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둘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마음 상태인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과 같은 이론적 개념들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그들의 행동을 설명, 예언하는데 있어 인과론적 원리를 사용한다(Olson, Astington, & Harris, 1988).

일반적으로 마음에 대한 공식적인 이론의 시작은 흔히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에서 찾는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육체와 마음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공간 속에 존재하며 공간 속의 모든 물체를 지배하는 기계적 법칙들에 따르는 반면, 정신은 공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며 그 활동이 기계적 법칙들을 따르지도 않는다. 정신의 활동은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과정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뿐이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마음과 육체가 분리된 두 개의 평행하는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라일(Ryle, 1994)은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마음이 의지하는 바를 다리와 팔 그리고 혀가 실행에 옮기며, 귀와 눈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의 지각작용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얼굴을 찡그린다는지 미소를 짓는 것은 마음의 기분상태에 따른 것이요, 신체상의 체벌을 가하는 일은 마음의 도덕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행동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마음의 통찰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기초적인 단서가 된다. 즉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상태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상태를 갖고 있으며 이 마음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상식심리학(commmonsense psychology) 또는 민중심리학(folk psychology)이라고 한다(이윤진, 2000). 상식심리학의 중심 개념이 되는 마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Wellman, 1990). 첫째, 마음은 사물과는 달리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다. 둘째, 마음은 사적이고 개인적이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셋째,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마음이 표상이라는 점이다. 즉, 상식심리학에 의하면 마음 이해란 인간의 내재적인 면을 행동과 연결지어 행동을 통해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일상적 추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손상희, 2008). 이처럼 마음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탐색하고 마음을 알고자 하였다.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은 프리맥과 우드러프(Premack & Woodruff, 1978)가 발표한 논문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에서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침팬지에게 사람의 행동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침팬지에게 철장 안에 있는 주인공이 바깥에 있는 바나나를 쳐다보는 비디오 장면을 보여준 후 이후에 일어날 행동에 대한 사진들을 제시하는 실험을 하였다. 침팬지는 사진 중에서 바나나를 얻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사진을 고름으로써 비디오에 나온 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사실상 침팬지들도 인간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은 어린 유아들도 언제 마음이론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 마음이론의 연구동향

유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마음이론의 연구들은 유아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이론을 적용하여 행위자의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유아가 마음이론을 습득했다면 상대방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위를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사회적 마음이론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사회인지 발달의 과정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짓 믿음 과제(false belief task)’를 사용하여 유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표상이 실재와 다를 때 틀린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가 거짓 믿음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거짓 믿음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 4-5세의 유아도 외부와 다른 정신현상에 대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과 행동은 객관적인 자극 실재가 아니라 정신적 표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함을 나타내고 있다(Wimmer & Perner, 1983).

마음이론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짓 믿음 과제는 연구자마다 자신의 이론에 근거하여 변형

하여 사용하고 있다. Wimmer와 Perner(1983)가 처음 시작한 맥시 과제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 맥시는 초코렛을 부엌의 선반(X)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간 뒤에 엄마가 초코렛을 다른 선반(Y)로 옮겨 놓았다. ‘주인공 맥시가 부엌으로 돌아와서 초코렛을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물음에 실제로는 Y에 있지만 행위자의 믿음에 따라 X에서 찾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하였다. 이것은 목표물의 실재가 아닌 행위자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행동을 예언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3세 유아들은 저조한 수행결과를 나타냈고 4세 이후가 되어야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세 유아는 상위표상능력이 부족해서 거짓 믿음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Wimmer, Hogrefe와 Perner(1986)은 맥시 과제가 유아의 정보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을 지적하고 행위자의 믿음을 직접 지시해주는 좀 더 쉬운 과제를 제안하였다. Smarties라는 상표의 사탕통에 연필을 넣어두고 유아에게 보여주고 뚜껑을 덮은 후 ‘만약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친구라면 이 통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까?’를 물어본 결과 4세 유아들이 ‘사탕’이라고 반응한 반면, 3세 유아들은 ‘연필’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과제는 마음이론 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과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약간씩 줄거리만 변형하여 반복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대부분 3세는 낮은 수행을 나타냄으로써 마음이론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4세 이후가 되어야 마음이론이 현저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표상과 관련지어 여러 개의 정신 모델을 인지적으로 관련지어 표상할 수 있는 마음이론의 획득은 4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Gopnik & Astington, 1988; Moses & Flavell, 1990; Pillow, 1988). 그러나 3세 유아도 각자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밝힌 연구들도 많이 있다(Wellman & Bartsch, 1988; Clements & Perner, 1994; Siegel & Beattie, 1991; Lewis & Osborne, 1990). 특히, Wellman(1990)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3세가 되면 타인의 생각이나 믿음을 표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실재와 다른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는 4세가 지나야 가능해지며 실재와 다른 믿음을 기초로 타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은 그 후에 나타난다.

한편, 마음의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면서 유아들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Slaughter, Dennis와 Pritchard(2002)는 마음의 이론과 유아의 인기도에 대한 연구에서 마음의 이론은 또래의 바람, 정서 및 사고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아와 마음이론에 관한 연구들의 중요한 주제는 유아가 언제부터 마음의 표상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과 어떤 행동을 유아가 마음의 표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와 마음이론 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며 마음이론의 출현 시기에 있어서도 2세 이전의 유아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견해와 만 4세 이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마음이론이 발달한다는 다른 견해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송정, 2007).

최근 마음이론의 연구들은 마음의 요소 중 인간의 욕구와 금지된 규칙들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정서에 대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신념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agattuta(2005)는 인간의 욕구가 금지된 규칙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욕구 충족과 욕구

억제의 정서적 결과에 대한 4-7세 유아들의 개념을 연구하였다. 2-3세의 유아들은 인간의 욕구와 정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즉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을 얻은 후에 일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는 불만족을 느낀다는 실험적 과제에 대해서 일관된 지식을 나타냈다. 규칙을 어기기로 결정하고 욕구를 만족시킨 경우와 규칙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욕구를 포기한 후의 정서에 대한 4-7세 유아 그리고 성인의 예측과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agattuta는 욕구와 정서간의 원형(욕구충족=기분 좋음; 욕구불충족=기분 나쁨)이 언제 왜 달라지는지와 어떤 이유로 부정적 정서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규칙 위반자로부터 기인하고, 긍정적 정서가 욕구를 금지시키는 규칙 준수자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 연구는 욕구와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에 대한 연구와 자기조절 및 규칙,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유아의 추론과 관련한 연구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마음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음이론과 관련하여 유아가 언제부터 사람의 행동을 마음상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추론하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Ⅲ.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유아 관련 마음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기독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경에서 나타난 마음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마음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1. 마음이론에 대한 평가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조명을 통해 기독교 교육에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론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심리학과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마음이론의 부각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적인 접근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마음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구분아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마음이란 내면적인 정신작용으로 철학의 분야에서 고차원적으로 다루어져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마음을 인간의 행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자들은 마음상태를 분석하였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마음상태인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의 이론적 개념들을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의 영역에서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각을 인간 내면의 마음으로 돌림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일깨웠다는 점이다. 교육의 목적이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결국 인간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변화'라는 공통된 속성을 포함한다고 할 때, 이제 이러한 변화는 두 측면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변화의 측면이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

을 맞춰왔고, 그 결과가 교육의 부재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교육의 변화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측면은 바로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음이론을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연계한 점이다. 이시자(2001)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인적 환경과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음이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현재 연구된 심리학에서의 마음이론들은 어떻게 마음이 출현하며 발달되어가는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시작이며 기초가 되는 마음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마음의 본성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인간의 전체적인 기능 측면에서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신념-욕구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욕구와 신념이 합쳐져서 나타남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구체적인 작용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마음의 본성과 위치를 고찰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둘째, 현재 마음이론의 연구방향은 주로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타인의 행동을 통하여 그 속마음을 추측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데, 타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유은정,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관련 마음이론도 유아들이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및 타인의 입장을 조망하는 능력의 개념으로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즉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유아의 인지발달이 마음이론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서미정, 2005). 물론 이러한 관점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요구를 지닌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방향성은 애초 타인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행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마음이론의 실천적 적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들이 연령에 따라 마음이론을 발달시키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인지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음이론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현재 이루어진 마음이론들은 학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부족하고, 마음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여전히 발전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조명은 또 다른 차원의 접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변화 즉 성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마음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묘사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진리의 지식, 의로움, 거룩함 등을 나타낸다(최홍석, 2005).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구조적 본성에 있어 영과 육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간주된다. 철학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탐색되었던 영혼과 육체는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즉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적 관점을 견지한 반면 보다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영혼과 육체가 이분법적이면서도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마음이 영혼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할 때(Collins, 2000), 이는 왜 마음과 행동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뇌과학에서 풀어 가려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마음과 행동의 연결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성 그리고 이 유기적 통일성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귀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창세기 6:5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에서 마음은 외면적 행동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애초에 마음이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창세기 6:6에 나타난다.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에 나타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마음의 의미를 탐색하려고 하고 마음을 분석하여 그 구성요소를 밝혀내기 위해 인위적인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결국 그 본질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마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본질은 타락으로 인한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의 본성과 위치는 결코 심리학자들이 찾을 수 없는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려져야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에스겔 36:26은 마음을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별하여 마음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굳은 마음’과 대비되는 마음이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마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은 과거의 악한 마음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이며 또한 선한 마음인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방향성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져서 전도서 7:8에서는 ‘참는 마음’과 ‘교만

한 마음'으로 나뉘고 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오니” 전도서 전체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선인과 악인의 대비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점은 선인과 악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마음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도서 10:2에서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으로 확고하게 구별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 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지혜자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우매자의 우매한 마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 편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와 다른 왼편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반된 두 가지의 방향성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갖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은 먼저 마음이 비물질적인 공간이며 그곳에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마음의 선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면 성경에서 마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규정하였는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1:7은 성경이 마음을 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의 구별로 끝까지 않고 더욱더 세분화된 마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에서는 감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라는 악한 감정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는 선한 감정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악에게서 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외심으로 나아간다. 정말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다.

또한 빌립보서 4:7에서 나타나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구성요소는 마음이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평강을 통해서 마음이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마음은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감정 또한 선과 악의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시편 20:4은 마음이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이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욕구이며 도모하는 것 역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따라서 시편구절은 인간의 마음이 욕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마음의 욕구라는 요소는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선하거나 혹은 악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욕구는 행동의 동기이자, 마음을 이루는 요소이며 마음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서 각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가 존재하게 된다.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의미는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대비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이 다툼이나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란 감정의 상태, 혹은 감정의 표현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한1서 3:21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악한 경우와 선한 경우로 나뉘게 되고 마음이 자신을 책망한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후회 등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선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된다.

고린도전서 2: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욕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구절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선한 욕구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악한 욕구와 선한 욕구가 대비되어진다.

히브리서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은 악한 욕구로서 ‘양심의 악’과 선한 욕구로서 ‘참 마음’을 대비시키고 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욕구로서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서 변하여서 참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의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선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마음을 설명할 때에 감정과 욕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각 마음의 구성요소인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시키면서 마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분석한 결과, 마음 자체가 두 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의 의미가 ‘감정’과 ‘욕구’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선과 악을 향한 두 가지 방향성이 계속 영향을 미침으로 감정과 욕구도 역시 동일하게 선과 악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나타난 마음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의 종류와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 표 1〉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종류와 구성요소

마음	선한 마음	선한 감정
		선한 욕구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악한 욕구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과 욕구의 의미를 갖는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구성요소는 인간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인간의 행동이 감정과 욕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따른 행동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유아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마음이론을 살펴보고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비인간화 현상 및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부재현상에 맞물려 최근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는 마음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독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보다 성경적으로 마음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마음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론이 유아들에게도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갖게 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짓 믿음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왔으며, 마음이론 획득은 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많은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이전의 연령의 유아들에게도 마음이론이 존재하지만,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한 부분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마음이론은 욕구와 관련하여 욕구 충족과 욕구 억제의 정서적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Lagattuta, 2005).

마음이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영역에서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각을 인간 내면의 마음으로 돌림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일깨웠다는 점이다. 셋째, 마음이론을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연계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음이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연구된 심리학에서의 마음이론들은 어떻게 마음이 출현하며 발달되어가는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마음의 본질과 기원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둘째, 현재 마음이론의 연구방향은 주로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접근되어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 부분이 약화되었다. 셋째, 마음이론의 실천적 적용에 있어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마음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마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성경에 나타난 마음이해를 통해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의 인성교육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마음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영과 육의 유기적 통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마음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창세기 6:5-6에 마음의 본성과 기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마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마음의 본성은 악함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대비시키며, 마음이 감정과 욕구의 의미를 가짐을 성경구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함과 악함의 대비는 이 감정과 욕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나타난 마음은 철저하게 선악의 구조를 따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지금까지 현 교육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본질적이 인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면적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21세기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최근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음이론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마음은 행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능력으로서 마음이론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다. 현재 교육의 현장에서 던져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교육의 대상자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이어야만 한다. 유아의 경우 마음이론을 습득하는 시기가 4세 이후로 보편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과연 그 이전의 시기에는 마음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가이다. 마음이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만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보다 어린 연령의 영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

음을 이해하는 마음이론을 발달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린 영아들도 마음의 작용에 의해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어린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입을 감안할 때,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과 행동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본성적인 측면을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심리학에서의 마음이론이 자기조절과 정서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Lagattuta, 2005).

둘째,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구성요소로서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은 마음을 끊임없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감정이나 혹은 악한 감정이나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감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유아들이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명명 및 감정조절을 통해 유아의 정서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이에 비해 성경에서 나타난 감정은 그 감정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한감정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점차 감정 특히 분노에 휩싸인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느끼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이 사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노아홍수 이전의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인성과 마음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인성이란 그 어의 면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느냐, 악한 존재로 보느냐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도은아, 2007).

셋째,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구성요소로서 욕구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agattuta(2005)에 의하면 상식심리학에서의 중요한 핵심 원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욕구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이며, 이는 어린 유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이 욕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욕구와 규칙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욕구가 있으며, 개인적 욕구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였다(Wellman, 2002).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 할 수 없다(Kochanska, 2002). 즉, 그들의 개인적 욕구가 항상 충족되어지지는 않는데, 이는 사회도덕적 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에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자기조절의 과정으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단계인 욕구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겉사람의 변화가 아닌 속사람의 변화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마음의 변화이며 욕구의 변화인 것이다. 즉 개인적 욕구는 사회적 욕구에 의해 좌절되며, 사회적 욕구는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욕구로 좌절될 수 있는 것이다. 창 6:6에는 하나님께도 분명히 마음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삼상 2:35

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마음을 통해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개인적 욕구에서 하나님께 대한 욕구로의 도약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결국 개인-이웃-하나님이라는 도식이 이 틀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억제가 사회적 욕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는 자기조절의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참고문헌

- 도은아 (2007). “기독교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서미정 (2005). “마음의 이론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함의”.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손상희 (2008). “유아의 마음 이해와 도덕 이해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원인숙 (2011).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실태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유은정 (2005). “유아의 우정 개념과 마음 이론(Theory of Mind)과의 관계에 관한 실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시자 (2001). “마음이론과 유아발달”. 『유아교육연구』 21.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65-90.
- 이원희, 홍기철, 김용조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과 인성발달을 위한 심리교육의 이론정립. 『초등교육연구』 13, 105-106.
- 이윤진 (2000). “학령전 아동의 마음이론의 개념적 발달: 속임능력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홍석 (2005).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Clements, W. A. & Perner, J. (1994). "Implicit understanding of belief." *Cognitive Development*, 9, 377-395.
- Collins, G. (2000). 『마음의 탐구』 허영자 역 (1994).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Gopnik, A. & Astington, J. W.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al change and its re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false belief and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hild Development*, 59, 1366-1771.
- Kochanska, G. (2002). "Committed compliance, moral self, and internalization: A mediation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ical*, 38, 339-351.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박경자 외 역 (2011).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경기: 교문사.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3-733.
- Lewis, C. & Osborne, A. (1990). "Three-year-old's problems with false belief: Conceptual deficit or linguistic artifact?" *Child Development*, 61, 1514-1519.
- Moses, L. J. & Flavell, J. H. (1990). "Inferring false beliefs from action and re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61, 929-945.
- Olson, D., Astington, J., & Harris, P. L. (1988). Introduction. In J. Astington, P. L. Harris, & D.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llow, B. H. (1988). "Early understanding of perception as a source knowledg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7, 116-129.

- Ryle, G. (1984). *The concept of mind*. 이한우 역 (1994). 『마음의 개념』. 서울: 문예출판사.
- Siegal, M. & Beattie, K. (1991). "Where to look first for children's knowledge of false beliefs." *Cognition*, 38, 1-12.
- Slaughter, V.,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45-564.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ies of mind*. Cambridge, MA: Academic Press.
- _____ (2002).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world: Developing a theory of min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167-187.
- Wellman, H. M. & Bartsch, K. (1988). "Young children's reasoning about beliefs." *Cognition*, 30, 239-277.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Wimmer, H., Hogrefe, J., & Sodian, B. (1988). A second stage in children's conception of mental life: Understanding information access as origins of knowledge and belief. In J. Astington, P. L. Harris, & D.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